

지 상 범 석

본래 마음 찾는 터전입니다

“너와 나는 부처님자리 향해가는 예비부처들 생활속에서 불성 조금씩 찾아내는 수행을...”

수행이 수행이 생활이 된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습니다. 어렵다 쉽다를 따질 이유마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상한(善讚)이라 합니다. 상받고 칭찬받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번째는 칭찬과 반대되는 비방받는 것입니다.

것은 즉 불(佛)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법(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승(僧)은 비구·비구니를 말합니다. 또 다른 삼보로는 주지(住持) 삼보가 있습니다.

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불성이 있다는 것과 내 삶의 현장이 그 불성을 드러내 보는 자리라는 믿음을 삼보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지날때 우리는 아무런 걸림이 없을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실현후 바로 반야심경은 '수상행식(受想行識) 역부여시라 선언하고 있다. 관자재보살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반야로 보았을 것을 선언하고 있달아 그 내용을 살하는 것이니 물질계만 공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감각 지각과 사람의 감성미 이상을 포함하는 정신작용도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온개공의 선언과 부합하지만 이렇게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바른 믿음이죠” 불자들의 수행정진 ‘중생세상 정토화’ 가는 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스스로가 불성을 지녔다는 믿음 못지 않게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이 현실의 세상이 곧 우리가 본성을 찾아 부처의 경지에 오를 터전이라는 겁니다.

간사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간사(世間事)를 고(苦)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苦)란 무엇입니까? 생(生)·노(老)·병(病)·사(死)이지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苦)라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니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믿음 불성 드러내겠다는 믿음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지닐 때 걸림없는 용기와 지혜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사의(不思議)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또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신과 물질 하나... 일체감각 공의세계 사물·현상은 의식이 만들어낸 창조물

함을 사리자에게 설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물질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정신계는 더더욱 모른다. 따라서 지금 정신·물질을 입자·파동의 이중성과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거나 확인할 길은 없다.

btn 캠페인 1 불교 TV 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보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니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깊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불교TV 설치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공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